

# “딥러닝 AI로 얼굴 정확히 인식... 안경·모자 걱정마세요”

## AI 기업인

김정배 알체라 대표

얼굴인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로 사업을 전개해 13억 인구의 얼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인정받는다. 반면,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얼굴인식 AI가 발전하기 힘들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세계 얼굴인식 기술력 테스트에서 중국의 AI 유니콘 기업인 센스타임·메그비와 일본 NEC 등을 제치고 상위권에 오른 국내 얼굴인식 AI 기업이 주목을 받았다.

알체라는 얼굴인식 AI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테스트인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2018-19 얼굴인식 벤더테스트(FRVT)에서 국내 기업 중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기술력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13년 근무하며 얼굴인식 AI 기술을 개발한 베테랑인 김정배 대표가 기술 개발을 진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동 창업한 황영규 부대표 역시 삼성종합기술원에서 9년을 근무하며 얼굴인식 기술을 같이 개발한 후배다.

김정배 대표는 “수년 전부터 둘이 창업하자고 얘기해오다, 황 부대표가 스노우에서 얼굴을 3D로 파악하는 기술 개발을 의뢰받으면서 회사를 설립했다”며 “운이 좋게도 스노우의 모회사인 네이버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 2016년 6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세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를 마치고, 카이스트에서 손제스처 인식 분야를 석·박사 과정 중 공부했기



김정배 알체라 대표

/알체라

### 얼굴인식 벤더테스트 국내기업 1위 이통3사·삼성전자·외교부 등 고객 영상인식 분야 총망라해 사업 추진

때문에 전문적으로 얼굴인식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는 삼성에서 ‘갤럭시 S8’에서 얼굴을 폰 앞에 대면 잠금이 풀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다.

“스노우에는 AI가 사람 얼굴 데이터를 학습해 영상을 3차원으로 실시간 분석하는 엔진을 만들어 제공했어요. 딥러닝 기술로 AI가 안경을 썼건, 모자를 썼건 상관없이 얼굴의 눈·코·입을 찾아주고 얼굴 깊이 등을 감지해 3D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해주죠.”

알체라는 이후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얼굴인식, 이상상황감지기술(VADT), 증강현실(AR), 학습데이터 제작 등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를 통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포스코, 외교부 등 21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2018년 얼굴인식 AI 사업을 시작해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3번째로 얼굴인식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힘들었는데, 금융위의 샌드박스로 신한카드가 지난해 9월부터 ‘페이스 페이’를 본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가 곧한 대학교로 확대되고, 편의점 등으로 확산될 거예요.”

알체라는 또 외교부에서 지난해 10월 안면인식을 이용한 여권 발급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향후 얼굴인식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얼굴인식 도입을 위한 실증과제도 진행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은 출입국 심사에서 얼굴인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올해 말경 걸어가면서 얼굴인식을 하는 워크스루(walk through) 방식을 도입해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알체라 AI 기술을 활용한 화재 감시 장면.

김 대표는 AI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달에 일본 건설회사 카즈마에 얼굴인식을 이용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얼굴인식만으로 와야 할 인력들이 다 왔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빠르게 체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산불을 감시하는 용도로 이상상황감지 솔루션을 제공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미국 산불 감시회사와 올해 초까지 AI 기술로 화재를 감시하는 기술검증(POC) 과제를 진행했다”며 “이를 확대해 캘리포니아 산불 감시용으로 사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I 이상상황감지 기술은 이미 한국 전력에 도입됐는데, 시설물 주변에 누군가가 배회나 침입을 하거나 방화를 하는 등 이상상황을 감지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카메라를 바꿀 필요도 없이 AI 서버에 기존 CCTV를 연결해 사용하기만 하면 돼 매우 편리해요. 건설·토목 현장 등에는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건설사 등에 납품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알체라는 AI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AR 분야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합한

것인데, 저희는 현실 분석 쪽을 맡아 왔어요. 스노우에도 AR 기술을 적용했고, LG유플러스, CGV의 AR 키오스크에도 제품을 공급했어요.”

알체라는 또 AI용 학습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동영상·사진 등 학습용 영상 데이터를 SK텔레콤, 삼성전자, 네이버 등에 공급하는 성과도 거뒀다.

“3년 9개월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주목을 받게 됐고, 저희 엔지니어들 중에 상품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 기술력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요.” 이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으며, 누적 160억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 그는 올해 기술특례성장으로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정감사를 끝내고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월 말~9월 초에 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플러그앤플레이의 지원으로 실리콘밸리에 미국 법인을 오픈했고, 베트남 호치민에 2018년 12월 법인을 설립한 만큼 올해는 동남아 등 해외 공략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얼굴인식에 국한되지 않고, 영상에 관련된 것이라면 분야를 망라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상인식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기술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노우 앱을 사용하고,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폰에도 새 기능이 적용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AI로 법률 도움”... 리걸테크 기업들 시장 진출

## 인텔리온연구소 기능 고도화 제품 잇따라 출시

## 로앤컴퍼니 시기업 텍스트팩토리 인수

그동안 선두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온 법률 인공지능(AI) 시장에 리걸테크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국내 법률 AI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 AI 선두업체인 인텔리온연구소는 올해 성능을 고도화한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로앤컴퍼니·리걸인사이드 등 리걸테크 기업들이 최근 법률 AI 오픈베타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AI 회사 인수로 법률 AI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영익 인텔리온연구소 대표는 “IT 도입에서 보수적인 법률 분야에서 국내 30여개사가 리걸테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등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며 “리걸테크 기업 중 단순 자동화 기반이 80%이고 AI 딥러닝을 활용하는 기업이 20% 정도인데 최근 AI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4년 안에 법률 AI가 더 보편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비

대면 추세가 강화되면서 온라인, 자동화, AI가 결합된 리걸테크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텔리온연구소는 지난해까지 제품 개발에 주력해왔지만, 올해 초 기능을 고도화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제품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올해 법령·판례 검색엔진인 ‘유렉스’의 2.0을 내놓았으며, 법률 Q&A 시스템인 ‘법률메카’ 1.5 버전도 출시했다. 또 계약서 자동분석기인 ‘알파로’는 올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서고, 알파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금융 계약 분석기인 ‘알파로F(파이낸스)’도 개발 중이다.

인텔리온연구소는 특히 ‘법률메카’ 서비스에 최근 ‘코로나Q&A’ 카테고리를 새롭게 오픈했으며, n번방 사태 등으로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AI 기업인 텍스트팩토리를 인수하면서 법률 AI 사업을 강화한다.

텍스트팩토리는 법률정보 전문업체인 로앤비 대표를 지낸 안기순 변호사가 2015년 만든 스타트업으로, 앞으로 안 변호사가 사내이사로 합류해 AI 팀을 맡는다.

로톡은 2014년 출시돼 1263만명이 방문해 변호사 1826명과 27만3495건의 상담이 이뤄진 만큼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세대 법률 AI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형량 예측, 법률문서 자동작성, 계약서 분석 서비스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로앤컴퍼니는 또 이용자가 일상언어로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법률적인 결론이나 해결방향을 제시해주는 법률 AI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리걸인사이드는 AI전문기업 티쓰리큐와 공동으로 AI 계약서 추천·자동작성 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초 오픈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능형 계약서 추천 및 자동작성 서비스는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원하는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AI가 자연어 처리, 키워드 추출 등을 통해 의도를 분석한 뒤 가장 적합한 계약서 템플릿을 추천해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법률지식이 없어도 질의·응답을 통해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현재 근로계약서, 위탁용역계약서 등 250여개의 계약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 한전 그룹사 경영진, 위기극복 동참 급여반납

##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

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전력은 25일 전력그룹사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월급여의 120%(월급여 10%×12개월)를 반납하고, 처·실장급 직원은 월급여의 36%(월급여 3%×12개월)를 반납할 계획이다.

참여한 그룹사는 한전, 한국남동발



한국전력공사 전경

/연합뉴스

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0개사다. 반납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스팸 11만건 달해”

## 마스크·백신 등 테마주식스팸 47%

코로나19와 관련한 스팸 신고가 지난 두 달간 11만건에 달했으며, 스팸 중 마스크나 백신 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지난해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스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1만76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주식스팸이 5만1866건(47%)으로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이 같이 안내사칭형 스팸이 신고 접수되면 지체 없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